



밀턴의 초상화(영국 국립 초상화 전시실 소장)

## 구약성서 창세기에 없는 사과가 등장하는 존 밀턴의 ‘실락원 (Paradise Lost)’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밀**턴(John Milton 1608~74)은 영국의 시인, 사상가이다. 장엄한 문체와 사탄의 묘사로 유명한 대서사시 ‘실락원(1667)’의 저자로서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대시인이다. 1625년 17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대학 시절에는 도덕적 품행의 결벽성과 외모의 여성적인 특징 때문에 ‘크라이스트 대학의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밀턴은 청교도 혁명에 말려들어 혁명을 지지하고, 그 이후 약 20년간 그의 집필활동은 주로 평론이었다. 이들 저작은 공사(公私)에 걸친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집필되었는데, 청교도적 신앙을 기반으로 한 내적 자유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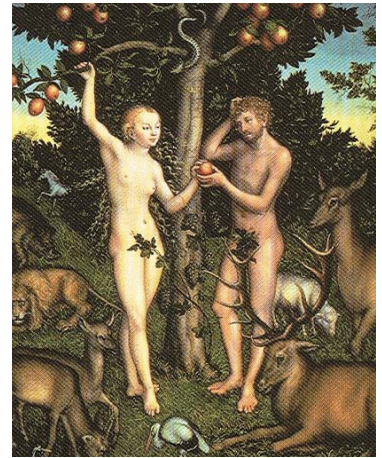
### 구약성서 창세기를 주제로 한 대서사시

실락원이 1667년 처음 발표된 당시에는 10권이었으나, 1674년의 재판(再版)에서는 12권으로 재판성되었다. 실락원은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기독교 문학상의 큰 기둥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으로, 구약성서 창세기를 주제로 1만 행의 서사시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단(禁斷)의 나무 열매 맛보아,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죽음과 온갖 재앙이 세상에 들어와 에덴을 잃었더니, 한층 위대하신 한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더니 하늘의 시신(詩神)이여 노래하라. [제1권 1~6행]

성서에서는 어떤 종류인지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열매라고만 적혀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

람은 눈이 밝아져...”(창세기 3:6~7). 성서에서 사과나무 및 사과는 달고 매력적이고(아가 2:3), 향기가 있고(아가 7:9), 색깔은 금빛이고 은빛이 나는 잎이 있으며(잠언 25:11), 과즙은 원기를 주고(아가 2:5), 그 나무는 그늘을 지을 만큼 높고 크다(아가 2:3, 8:5)라고 묘사되고 있다.



아담과 이브

성서에서 묘사되는 것에 한정한다면 사과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다. 예를 들면 다정한 애정을 쏟을 대상을 눈동자(the apple of the eye)라고 말한다. 신명기(32:10)에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그리고 시편(17:8)에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 몸 고이 간수해주시고”, 잠언(7:2)에서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간직하여라”.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서학자들은 성서에 표현된 과실이 사과 또는 오렌지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식물학자 조하리는 성서에 기록된 사과에 가장 적합한 식물은 살구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기록된 사과가 현재의 사과와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식물분류가 시작되는 17세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과실을 ‘사과(apple)’로 불렀다. 예를 들면 토마토를 ‘Love apple’, 대추야자를 ‘Finger apple’, 시트론을 ‘Percian apple’, 마르멜로를 ‘Cydonian apple’, 석류를 ‘Apple of Carthage’, 살구를 ‘Armenian apple’, ‘Apple of Sodom’, ‘Adam’s apple’ 등으로 불렀다.

## 신화에서 황금 사과를 불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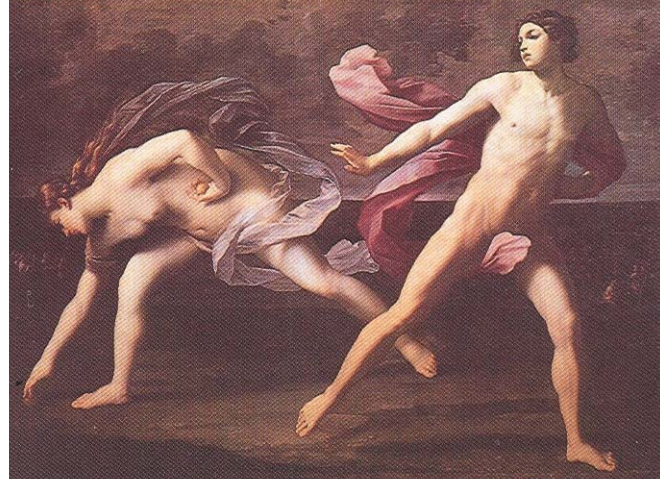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서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혼례식에 에리스만이 초대받지 못하자 화가 난 에리스가 몰래 혼례 식장에 들어가서 하객들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자를 위하여”라는 글이 씌어진 황금 사과를 던져 넣었다. 그러자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각기 자기 것이라고 우겼다. 제우스가 그 일에 대한 판정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맡기니, 파리스는 이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다. 이 일로 아프로디테는 후에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유괴할 때 그를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일어난 트로이 전쟁에서 헤라와 아테나는 철천지원수가 되었다.

헤라가 제우스와 결혼할 때 가이아는 황금 사과들이 열리는 나무를 선물하였다. 제우스는 헤스페리데스라는 3명의 아가씨들에게 이 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고,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에게 이 사과나무를 지키게 하였다. 많은 도둑들이 이 사과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런데 다만 헤라클레스만이 이 사과를 따는 데 성공하였다.

아탈란타는 발이 빠른 여자 사냥꾼으로 유명하다. 칼리도니아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하여 자기와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제의하고, 자기에게 진 남자들은 창으로 찢려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히포메네스와는 그가 아프로디테에게서 받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 3개를 떨어뜨리자, 아탈란타는 그것을 주우려고 멈추었다가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 사과 즉 에리스의 사과, 아탈란타의 사과, 헤스페리데스의 사과가 불화와 경쟁 및 분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파리스의 심판(審判)』 루벤스 작품, 1635년경 유화, 런던 국립 갤러리 소장. 세명의 미의 여신들의 표출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루벤스는 360° 각도로 회전시키고 있다. 정면, 측면, 후면으로 세 여신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 파리스 옆에는 신들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이다.



『아탈란타와 히포메네스』(레니 작품, 1618~19년, 유화)

## 사과는 선과 악을 일깨워준 열매

사과가 유럽에 널리 보급된 것은 중세 이후였다. 이브가 사과를 먹은 죄로 지상의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널리 알려진 유럽의 이런 이야기는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중세의 성모자화(聖母子畫)에는 어린 예수에게 사과를 드리는 천사나 성모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다.

밀교와 미술에서 사과는 비너스와 관련된 여성의 가장 좋은 상징이다. 사과를 수직으로 정확하게 반쪽으로 자르면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그러나 사과를 수평으로 자르면 선과 악에 대한 비밀스런 지혜를 알려주고, 연금술이나 점성술과 같은 신비학의 핵심이 되는 완벽한 오각형의 별 모양을 볼 수 있다.

라틴어 ‘malum’이 명사로 사과, 결점, 과실(過失)의 의미가 있고, 부사로 ‘나쁘게’라는 의미가 있다. ‘malus’가 사과의 학명으로서 속명으로 쓰이고 있는데, 형용사로 ‘나쁜’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라틴어로 사과 또는 사과나무는 악의 의미로 혼동되기 쉽다. 사과의 꽃말도 ‘유혹’으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창세기의 금단의 과실이 사과로 여겨지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밀턴은 ‘실락원’의 제1권에서 “금단의 나무 열매”라고 부르고, 4권에서 사과를 연상하게 하는 헤스페리데스를 언급하였으며, 5권에서 “황금색으로 윤기가 나는 껍질을 가진 열매”로, 9권에서 “아름다운 사과”로 표현하였다. 밀턴은 서사시 ‘실락원’에서 보다 오히려 산문인 ‘아레오페지티카’에서 확실하게 “선과 악의 지식이 쌍둥이처럼 함께 영겨서 이 세상으로 뛰어 들었던 것은 사과 한 알의 껍질 맛을 보았던 때부터였습니다”라고 쓰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사과인 것을 확신을 갖고 인정하고 있다. ㉔